



2012년 9월 27일(목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8월중 신규주택 매매건수 예상하회, 7월 수정치는 2년래 최고 기록
- 2) 8월중 기존주택 매매건수 예상 하회
- 3) 2/4분기 GDP 성장률 1.3% 확정
- 4) 8월중 내구재 주문 예상외 큰 폭 하락
- 5) 미기업들, 재정절벽 우려로 경제 악화 전망
- 6) 마켓워치, 미연준(FRB)의 12월 3.5차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 제기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8월중 신규주택매매건수 예상하회, 7월 수정치는 2년래 최고 기록

- 지난 9월26일(현지시간) 미센서스국은 8월중 신규 주택매매 건수가 전월 37만4천건(수정치) 대비 0.3% 하락한 37만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 38만 건을 하회하는 수준
 - 반면 전월치는 2010년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수정
-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, 가압류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 압박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
 - 한편 전문가들은 신용이 좋고 주택 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주택 매입 적기라고 평가

2) 8월중 기존주택매매건수는 예상 하회

- 지난 9월27일(현지시간)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(NAR)는 8월중 기존주택 매매지수가 전월비 2.6% 감소한 99.2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결과지만,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10.7% 상승
- 전문가들은 기존주택매매건수가 감소한 것은 미국내 다수 지역에서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온 재고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

3) 2/4분기 GDP 성장률 1.3% 확정

- 지난 9월27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소비자들의 지출과 기업 설비투자가 당초 추정치보다 더 부진, 2/4분기 GDP성장률 확정치를 1.3%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
 - 이는 1.7%였던 시장 예상치, 2.0%였던 1/4분기 확정치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
-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지출, 기업 설비투자 등이 하향 조정됨

- 2/4분기 중 민간 소비지출은 전분기비 1.5% 증가에 그쳐 2차 잠정치의 1.7% 증가보다 하향조정
-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역시 종전 4.2%에서 3.6%로 하향 조정
- o 반면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218억 달러로 증가, 이는 1/4분기중 530억 달러 감소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

4) 8월중 내구재 주문 예상외 큰 폭 하락

- o 지난 9월27일(현지시간) 미상무부는 지난 8월중 내구재 주문이 전월대비 13.2% 급감했다고 발표
 - 이는 시장 예상치 5.3% 감소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, 특히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반 만에 가장 큰 감소폭
 - 아울러 지난 7월 결과는 종전 4.1% 증가에서 3.3% 증가로 하향 조정
- o 한편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자동차 등 운송부문을 제외한 핵심(코어) 자본재주문 전월대비 1.6% 감소
 - 반면 국방과 항공부문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은 1.1% 증가해 5.2% 감소했던 7월 수준에서 급반등
- o 전문가들은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지적

5) 미기업들, 재정절벽 우려로 경제 악화 전망

- o 지난 9월26일(현지시간)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(CEO)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3/4분기 CEO 경제전망조사 보고서에서 기업인들이 금년 미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대비 0.2%p 낮춘 1.9%로 하향조정했다고 발표

- 기업들은 경제 전망 악화로 고용보다 감원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
 - 향후 6개월 안에 인력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CEO는 29%인 반면, 감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CEO는 34%에 이릅니다
- 향후 6개월내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CEO는 지난 2/4분기 75%에서 3/4분기에는 58%로 감소
 - 설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CEO도 43%에서 30%로 감소
-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장기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, 미 의회가 재정절벽을 막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로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미루게 하고 있다고 언급
 - 아울러 의회가 국가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

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전체 회원의 65%인 138명의 CEO가 참여했다.

6) 마켓워치, 미연준(FRB)의 12월 3.5차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 제기

- 지난 9월26일(현지시간) 마켓워치는 연준(FRB)이 오는 12월 초 국채를 추가 매입하는 3.5차 양적완화(QE3.5)를 시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도
 - 금년 말 오퍼레이션트위스(OT)가 종료됨에 따라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연준(FRB)에서 제기되게 있기 때문
- 한편, 연준(FRB)은 QE3 방침을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자산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
 -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OT 종료 후 연준(FRB)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채권 매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